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개인정보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 정보를 도용당해 가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웹 사이트 계정을 이용자 스스로 간편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자가 수많은 웹 사이트에 보관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탈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 혹은 도용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손쉽게 확인하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사이트(<http://p-clean.kisa.or.kr>)로 접속한 후 과거에 가입했던 웹 사이트 목록을 열람하고, 해당 내역 중 탈퇴하고자 하는 웹 사이트를 선택하면 되며, 이후에는 KISA가 탈퇴 처리를 진행해 처리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소시키고, 인터넷상에 쌓여 있던 개인정보를 감소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홈페이지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 선포

: 방통위, 불법스팸 예방 및 조사단속 강화

중앙전파관리소가 오는 12월 말까지를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스팸전송의 불법행위 처벌, 법제도 및 스팸 피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행성 도박, 대출광고 등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 이번 단속을 통해 스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과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법스팸 전송자와 의뢰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지난 7월 이관받은 것은 물론, 지난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권을 부여받아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 수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한편, 불법스팸 유발자 조사단속은 KISA 불법스팸대응팀과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스팸전담수사팀이 합동으로 스팸트랩 시스템에 검출된 불법스팸 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하게 되며, 사행성 도박 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대응 위한 종합계획 등장한다

: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방통위와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구축사업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검색해 주민번호 외에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더 나아가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와 연계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KISA가 검색 사이트 구글의 DB를 검색해 주민번호가 노출돼 있는 웹 사이트를 찾아낸 후 해당 웹 사이트 및 페이지를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구글의 DB에 표시된 웹 사이트만 점검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구글이 검색하지 못한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노출검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구글의 경우, 몇 개월 단위의 DB 업데이트 주기를 갖고 있어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 사이트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한다 해도 오히려 구글 DB에는 다시 저장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구축사업과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노출을 조기에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얼굴 1종, 지문 1종 성능시험 인증서 발급

: 전체 시험인증 기간 30% 이상 단축

KISA가 얼굴인식 업체인 퍼스텍 제품과 지문인식 업체 니트젠 제품 각 1개의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확인 시험을 한 결과, '성능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니트젠 제품의 성능확인 시험은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이하 K-NBTC)가 지문인식 알고리즘에 대해 첫 번째로 수행한 성능인증 시험으로, 이는 얼굴에 이어 지문분야도 신청업체가 제시한 성능측정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국내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NBTC 관계자는 "이번 인증서는 K-NBTC가 지문 및 얼굴인식 성능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수여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적용 전에 비해 전체 시험인증 기간을 3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시험과정의 특징을 소개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인증의 테스트를 위해 얼굴인식은 5개월, 지문인식은 약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문인식 알고리즘
성능시험 인증서 수여식

CEO의 한 달

초기에는 해킹과 침해사고 대응이 정보보호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보호 대응방안이 필요해지게 됐다. 때문에 국내 민간 분야 정보보호의 수장인 KISA 황중연 원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기관도, 수장의 활동반경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보호 정책방향 소개

· 시도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특별강연

지난 7일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13회 시도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KISA 황중연 원장은 '디지털 사회와 정보보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정보보호 정책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16개 시도 정보통신 담당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 잘 해 봅시다”

·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실천결의대회

또한 황중연 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실천결의대회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결의대회는 행정안전부와 KISA가 주최하고 GS홈쇼핑, SK에너지, 옥션, 대한항공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 200여 업체가 참가해 고객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사명감 고취 및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정보보호, 방송과 사이버 윤리영역으로 확장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정책 모색

한편, 황중연 원장은 지난 2일 삼성동 섬유회관에서 개최된 '정보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응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보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서 황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스템과 네트워크 위주의 정보보호에서 방송과 사이버 윤리영역까지 확장된 거시적인 정보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황 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정보보호의 영역이 더욱 커진다”며, “기술 지향적 정보보호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심리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정보보호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웹 2.0, IDM 등 인터넷의 진화에 따른 정보보호, IPTV, 서비스 등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통신 융합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사이버 모욕과 인터넷 명예훼손 등 윤리적 측면에서의 정보보호를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